

# 장흥군 마음건강치유센터 ‘대표 웰니스 관광지’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조화

## 웰니스 팸투어 운영 지원 등 건강검진 및 치유 프로그램

장흥군은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재)전남도관광재단은 매년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여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포함해 무안 하늘별바다, 완도해양치유센터 3개소를 선정해 관광 전문가 컨설팅, 웰니스 팸투어 운영 등을 지원한다.

장흥통합의료병원 내에 자리한 마음건

강치유센터는 지역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전남도, 장흥군, 원광대학교, 국립나주병원 4개 기관이 협약해 설립한 시설이다.

체성분·스트레스 검사와 같은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한약족욕, 뜸 치료, 헤어스파, 온열테라피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웰니스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부터 전남도가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추진하는 만큼 웰니스 관광 기반을 다져서 글로벌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장흥군 제공

## 2024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고흥군, 30일까지 신고·납부

고흥군은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결산일 기준 고흥군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신고·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를 하거나 고흥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기타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336)로 문의하면 된다.

양가람 기자

## 상춘객 맞이 야간 경관조명 점등 고흥만 벚꽃길

고흥군은 두원면 관덕마을 카페 별해는물랑-예동마을 주차장 입구까지 조성된 데크 산책로 480m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일몰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다양한 색상으로 변하며 벚꽃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고흥만 벚꽃길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흥만 벚꽃길은 지금은 폐교가 된 옛 두원초(학림분교)에서 고흥만방조제까지 3.5km 구간에 형성돼 있어 매년 1만명 이상의 상춘객들이 찾는 대표 벚꽃 명소이다.

고흥만을 찾은 한 관광객은 “만개한 벚꽃으로 이루어진 터널에 조명이 더해져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신비로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 울포솔밭해수욕장 새 단장 보성군, 사업비 20억 확보

보성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24 노후 관광지 재생 공모사업에 울포솔밭해수욕장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은 관광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는 20억원이다.

사업은 솔밭 낭만거리 보행로 개선, 야간 경관 조명과 조형물 설치, 야외공연 무대 보완, 노후 주차장 재포장,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3월 착공한 울포해양복합센터를 비롯해 주민 소득을 높이는 여촌신활력 증진사업, 전남교육수련원 등 울포솔밭해수욕장이 관광지 지정된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울포솔밭해수욕장이 전국 최고 관광지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 봄꽃 6000본 심어 꽃동산 조성 한국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회장 박광기)는 지난 2일 광양읍 사곡리 인근(2번국도 도로변)에서 꽃동산 조성(330㎡)을 위한 봄꽃 심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전남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과 광양시 역점사업 ‘시가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에 적극 힘을 보태고자 솔선수범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꽃동산 가꾸기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날 회원 30여명이 이른 아침부터 사곡리에 모여 봄꽃(팬지, 페츰니아 등)과 맥문동 약 6000본을 심었다.

오는 5월과 9월에도 계절 꽃 심기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더불어 꽃이 잘 보존되도록 제초작업, 물주기, 병해충 방제 등을 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한국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가 광양읍 사곡리 인근에서 봄꽃 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 광양시, 청년부부 축하금 재혼한 부부에게도 지급

광양시가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는 결혼 축하금이 재혼한 부부에게도 지급된다.

3일 광양시에 따르면 청년 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다만 결혼축하금은 생애 1회 지원으로 부부 중 누구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지급기한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 이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부부에 해당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이던 신청 기한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기존 신청자를 아내로 한정해 남편이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위임장 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보성군,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5개 분야 15개 업체 21개 품목 8일부터 총 92개 답례품 운용

보성군은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해 풍성한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역자원 활용도, 상품공급 우수성, 사업목적 부합성, 가격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품목을 심의·의결한다.

추가 선정된 주요 품목은 △매실 △단

감 △복분자 △벌집병꿀 △사인머스켓 △감자 △새싹찜 △방울토마토 △완속도마토 △김부각 △녹차·단호박 양갱 △녹차 약과 △수제 오란다 △수제 그레놀라 선물세트 △녹차 죽육제 △녹차 립글로즈 △보성 녹차밭 천연비누 △보성 녹차 설거지 비누 △차꽃소녀 키링 △녹차바스 스프링클 체험 △한옥스테이 숙박권 등 농축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공예품·관광 5개 분야 15개 업체 21개 품목이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보성군 ‘답례품몰’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보성군에서는 시행 초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인 ‘보성몰’에 입점된 업체의 상품과 보성사랑상품권, 보성몰 모바일 쿠폰 등을 1차 답례품으로 선정 후 관광·체험형 답례품과 별초 대행 서비스, 반려용품 등 이색 답례품을 선보이며 71개 상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오는 8일부터 총 92개 답례품이 운용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향후에도 보성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해 다양하고 풍성한 답례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양가람 기자

## 순천시 “송광사 사천왕문 보물 지정 환영”

순천시는 한국의 삼보사찰 가운데 승보사찰로서 유서 깊은 절 ‘송광사’의 사천왕문이 보물로 지정돼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전남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을 보물로 지정 고시했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로 사찰을 끼고 도는 신평전을 중심으로 흥예교 위의 우화루와 자연 친화적인 위치에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며 건립됐다.

최초 창건 기록은 알 수 없으나 사천왕문 중장 상량문과 2004년 사천왕문 해체



보수 과정에서 확인된 상량문서를 통해 1612년 중창된 것으로 확인된다.

1951년 송광사 대화재 시에 재난을 피한 건물로 건립연대가 명확해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천왕문 내부에는 팔각 단면 심고주(내부 기둥)를 세워 대들보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사천왕상의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의장적 조형성을 드러내기 위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예술적·학술적·역사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천왕문은 17세기 초반 중창 당시 위치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부후선사와 관련된 천왕문 건축 확산의 조성 계보를 잇고 있어 의의가 매우 깊은 문화유산이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